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2월 9일

돌아오는 제대 군인들이 뉴욕주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돕기 위해 “경험이 중요하다” (EXPERIENCE COUNTS) 정책을 실시하는 CUOMO 주지사

차량부 이니셔티브 이제 발효

뉴욕주 귀환 제대 군인 가족 협의회에 새로운 선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돌아오는 제대 군인들이 뉴욕주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돕기 위해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의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유사 차량을 운전한 군대 경험이 있는 경우 상용 운전 면허를 신청하는 제대 군인들을 위해 뉴욕주 차량부가 이제 도로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귀향 제대 군인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돕고 뉴욕 서비스 멤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주지사에게 조언하는 주 기관 대표자 및 민간인들의 단체인 뉴욕주 귀환 제대 군인 가족 협의회에 대한 선임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제대군인들이 여기 고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국에 봉사하는 동안 습득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할 뿐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하였습니다. “우리 제대군인들을 더욱 돕기 위해 우리는 이제 뉴욕주 귀환 제대 군인 가족 협의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임자들은 뉴욕주가 우리의 귀향 서비스 멤버들과 제대군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 나라의 제대군인들을 섬긴 광범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우리 영웅들이 민간 인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는 것을 돕도록 군대 복무에서 나온 소중하고 전문화된 기량이 인정 받고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재향군인의 날에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Korean

제대 군인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돕기 위한 차량부의 정책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을 발표하면서 Cuomo 지사는 뉴욕주 차량부(DMV)가 도로 시험 요건을 면제함으로써 군복무 중에 트럭 및 중장비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뉴욕주 상용 차량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면제는 제대 후 최대 90일간 또는 현재 유효한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현역 복무 군인 및 현역 뉴욕 방위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상용 차량 운전이 요구되는 군직위에서 마지막 90일 이내에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었으며, 또한 군제대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민간 상용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운전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지난 4년 동안에 운전 면허가 정지, 철회, 취소 또는 거부 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DMV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http://www.dmv.ny.gov/forms/cdl102.pdf>에서 입수할 수 있는 “군인 기능 시험 면제를 위한 CDL 인증” (CDL Certification for Military Waiver of Skills Test)양식(CDL-102)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필기 시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40 도로 시험 수수료도 면제될 것입니다.

뉴욕주 차량부의 커미셔너인 Barbara J. Fiala는 “이 경기에서 많은 귀향 군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봉사에 감사하고 그들이 군대에서 배운 기능이 민간 일자리로 이전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 작은 방법으로 우리 귀향 제대군인들에게 일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재향군인업무과의 과장 대리인 Bill Kraus는 “본인은 Cuomo 지사와 뉴욕주 차량부가 귀향 제대군인들이 군대 기능을 의미있는 민간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매우 감사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은 우리 주의 많은 귀향 제대군인들이 민간 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과 뉴욕주 귀환 제대 군인 가족 협회 확대는 우리 주 제대군인들에 대한 주지사의 헌신을 증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군무 국장인 Patrick Murphy 소장은 “Cuomo 지사의 정책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중트럭을 운전하는데 있어서 기량을 갈고 닦은 방위군의 육군 및 공군 병사들이 그 실세계 경험을 민간 일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제대군인들과 복무 중인 방위군인들이 그들의 군사 훈련을 민간 취업으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이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귀환 제대 군인 가족 협의회에 선임

뉴욕주 귀환 제대 군인 가족 협의회는 제대 군인과 가족들이 복무후 삶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다양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역 혜택의 협동을 포함한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 재향군인의 날에 Cuomo 지사는 이 협의회가 추가적 주 기관의 대표자들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협의회에 주정부가 어떻게 하면 군대 훈련 및 경험을 특히 면허 및 교육 학점 프로그램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선임:

J. Michael Haynie, PhD: Dr. Haynie는 재향군인 업무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로서 본 협의회에 선임되었습니다. Dr. Haynie는 시라큐스대학교 제대군인가족연구원의 원장 겸 시라큐스의 휘트먼 경영대학원의 기업가정신 담당 반즈 교수입니다. Dr. Haynie는 비즈니스, 제대군인 및 기업가정신 관련 문제에 대한 인기 연사 및 고문이며, 미국 노동부 장관의 제대군인 취업훈련고용주 아웃리치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Veterans' Employment, Training, and Employer Outreach - AC-VETO)의 선임위원입니다. 시라큐스에서 Dr. Haynie는 장애 제대군인을 위한 창업 훈련소를 설립하였습니다. -- 군복무의 결과로 장애가 된 9/11 후의 제대군인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소기업 창업 훈련 제공으로 육군 장관에 의해 "미국 최고의 실천"으로 인정됨. Dr. Haynie는 미국과 전세계에서 작전 및 충원 분야에서 14년간 복무한 전직 공군 장교입니다. 시라큐스대학교 교수로 오기 전에 Dr. Haynie는 콜로라도주 Colorado Springs 소재 미공군사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Andrew Roberts: Roberts씨는 제대군인들에게 행동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본 협의회에 선임되었습니다. Roberts씨는 North Shore-Long Island 유대인 건강 제도(North Shore-LIJ)에서 군 제대군인 연락 서비스실 실장입니다. 이 자격에서 그는 법집행, 군, 제대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무료 행동 건강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인 Rosen Family Wellness Center의 소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Roberts씨는 또한 미국 재향군인업무부와 제휴하여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협동 서비스를 제공할 곧 개설될 Unified Family Behavioral Health Center의 프로젝트 담당 이사입니다. Roberts씨는 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전직 육군 장교이며, 2003-2004년에 이라크에 배치되어 90여명의 미국 군인들의 포병 지휘관으로 그리고 이란 국경 인근의 디알라주 소재 발라드루스시의 미국 연락관으로 봉직하여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North Shore-LIJ에서 근무하기 전에 Roberts씨는 뉴욕주 재향군인업무과의 부과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Suzanne L. Bissonette: Bissonette씨는 제대군인들에게 약물 남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본 협의회에 선임되었습니다. Bissonette씨는 버팔로 소재 주거지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Cazenovia Recovery Systems, Inc.의 집행이사입니다. Cazenovia는 30여년 전에 창립되었는데, 창립 그룹의 80% 이상이 제대군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Cazenovia는 뉴욕주 알코올중독약물남용서비스실의 인가를 받은 주거지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바타비아 소재 VA Medical Center 구내에서 남성 제대군인들에게 서비스와 이행

주거지를 제공하는 Liberty Hall을 운영합니다. Bissonette씨는 2001년 이래 Cazenovia Recovery의 집행이사입니다. Bissonette씨는 SUNY-Empire State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그리고 SUNY – 버팔로 법률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Todd Benham, Psy.D: Dr. Benham은 미육군의 의료서비스대의 전직 소령이며 Fort Drum 소재 행동건강부의 부장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제10 산악사단(경보병) 및Fort Drum에 배정된 약 40,000명의 군인 및 수혜자들을 상대로 행동 건강, 가정 학대 및 외상적 뇌손상 서비스를 위한 임상 및 행정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행동건강 책임자로서 Dr. Benham은 군인들이 적절한 행동건강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처분을 촉진하였으며 배치로부터 돌아오는 군인들의 건강 재평가를 실시하고, 월터리드 국립해군병원과 함께 원격정신의학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현하였으며, PTSD를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였습니다. Dr. Benham은Biola University Rosemead 심리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그리고Northwestern College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Fort Drum에 배치되기 전에 그는 하와이 소재Tripler Army Medical Center심리학 인턴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이 협의회는 재향군인업무과 과장, 군사해군과 군무 담당, 보건부 커미셔너, 노동부 커미셔너, 정신건강실 커미셔너, 알코올중독약물남용서비스실 커미셔너,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들 및 제대군인과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2명의 추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Cuomo 주지사는 제대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주 정부 단체들 및 제대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들을 추가하기 위해 이 협의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월 추가는 가정지역사회갱신 담당 커미셔너,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의 총재, 경제개발부 커미셔너 및 노령실 실장 또는 그들이 지정한 자들을 포함합니다. 주 교육부의 대표자도 자발적으로 본 협의회에 참여합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